

산림문화를 일구는 임업과 임학

〈完〉

(사)한국아까시나무연구회 회장 임 경 빈 (농학박사·전서울대교수)

〈전호에서 계속〉 자기의 수명의 길고 짧음을 걱정하지 않고 백성의 궁핍을 걱정한다. 우임금은 물길을 다스리는데 자기 몸을 양간(陽間)의 물에 바쳤고 탕(湯)은 나라의 가뭄이 심하자 자기 몸을 상림(桑林)의 제사에 바쳐 빌었다. 신농씨는 초췌했고 요임금은 아위었고 순임금은 햇볕에 타서 검게 되었으며 우임금은 손에 발에 굳은 살이 박혔다. 이것으로 성인은 백성의 보살핌이 극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솔자 아래 온 백성이 성실하고 근면하면 일이 성취될 수 있고 육구의 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문도자들이 나라의 요체를 인식하고 백성과 함께 부지런할 때 나라 일의 다스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말 지도자라는 위치는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독일과 미국의 임업발전의 자극제가 된 한 모퉁이를 살펴볼 때 위에 인용한 옛적 농업서적의 논지(論旨)와 다를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수가 없음이 지적되고 있다.

12. 임업의 길

초기의 인류는 존재하고 있었던 나무와 숲을 그대로 이용하고 미래의 생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또 불의 발견과 더불어 산림의 이용이 가속화되고 드디어 인간은 숲이 파괴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끝내는 필요한 임산물의 부족을 인식하게 되었다.

경작에 의해서 곡식을 생산하듯이 나무와 숲도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인간의 힘을 주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생각이 대두되

어 임학이라든가 임업이라 하는 이론과 기법의 발전이 있어야 함을 또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러한 처지에 놓인 세계 각처에서 일어났을 것이나 특히 북반구의 온대림지역과 아한대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성이 일어났고 이러한 지역은 침엽수종을 주로 하고 아울러 낙엽활엽수종이 나타나는 곳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이 주요 국가로 지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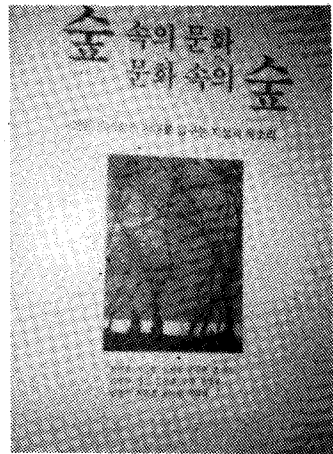
이용가치나 생산기술의 용이성으로 보아 대상은 침엽수종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초기 임학은 침엽수 임학으로도 말할 수 있고 또 온대림 및 아한대림 임학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 중 독일은 가장 먼저 임학 즉 임업과학에 눈을 뜬 나라이고 임업기술의 기반을 다진 나라로서 그 이론과 기술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세계 국가의 임학의 모델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임학의 발달과정과 그 논리의 핵심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그 줄거리를 요약해 본다.

전제해서 말하여 둘 것은 임학과 임업이란 것은 경제성의 원칙 위에 서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오랜 세월을 요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장엄한 숲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수백년 또는 천년을 두고 이루어진 자연림의 구조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그곳의 나무는 뛰어난 질과 숲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 스케일이라든가 숲의 이용은 짧은 기간 안으로 회전되어야 하고 우

리는 도저히 자연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인간의 힘이 주어지므로서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알맞은 것이라면 그쪽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숲을 세월없이 방치하여 두면 원시를 방불케하는 상황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사람은 숲을 만들고 숲은 인류문화를 만들어내는 역사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물론 지역을 구분해서 이러한 숲의 출현을 기대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임학과 임업의 핵심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점도 있다. 그렇다고해서 임업인이 숲의 자연생태의 원리의 이해와 적용에 소홀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생리, 생태원리를 적용해야 환금성 경제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지역, 천연림보호구역을 책정해서 인력을 주지 않는다는 성격의 숲을 상정할 수도 있으나 이것도 통행로라든가 공간적 규모 등으로 옛적의 생태계를 재현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임학과 임업은 인간이 나무와 숲에서 바라는 가치를 최대한으

로 얻고자하는 이론과 기술을 다루는 것으로 되도록 짧은 기간에 생산을 회전시키고자 한다. 회전대상이 되는 가치라는 것은 목재 등 환금이 될 수 있는 유형적 물질이 주이고 물, 공기, 미관 등은 오히려 그 질과 양에 있어서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회전성과 비회전성의 가치의 양면을 내다보면서 임업인은 일하게 되는 것이다.

회전되는 환금성 가치도 그것이 해마다 또는 2~3년마다 비슷한 양으로 얻어진다면 그것은 건전한 임업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임학이 움트게 되었다.

13. 숲과 임업인의 역할

한 국가의 국토를 덮고 있는 숲은 우리 민족의 어버이로 볼 수 있고 우리 국민은 우리 숲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두 남매를 둔 한 가정 이 있다고 하자. 아버지는 일을 해서 한 달에 평균 200만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일년으로 말하면 24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다.

어머니는 그 돈을 조리있게 사용하면서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 두 남매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 가정의 구성원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때 아버지의 현금수입이란 것은 이 가정의 생태계를 유지 시키는데 절대적인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이 가정이란 생태계의 유지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현금 이외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의 소유자이다. 만일 부모의 돈으로 대체환산(代替換算)해서 가치를 현금으로 따진 돈을 두 남매에게 주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 집으로 부터 떠나게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행복의 파괴가 오

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숲은 우리의 부모이다. 나무를 끊어 목재를 생산해서 돈으로 바꾸는 일이 없이는 또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아버지의 수입(목재가치)없이 그 집의 생계가 유지되었는가. 환금성의 생산(주로 목재)없이 우리 국민이 살아갈 수 있었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산과 숲을 경영해서 돈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나무와 숲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각종의 혜택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의 것이다. 부모의 사랑에 한계가 있는가. 공기, 물, 국토보존, 아름다움, 각종 생물의 보호 등등 숲의 사랑은 돈으로 따지기 어렵다. 어머니의 기능을 파출부의 멧가로 환산할 수 있는가. 부모의 사랑의 멧가. 그것은 숲이 던져주는 공익적 가치에 비유된다.

우리 임업인이 숲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어버이를 가장 훌륭하고 가치있게 하는 존경심에서 오게 된다.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듯이 우리 숲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가장 많은 가치가 생산되도록 일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숲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한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사랑이 더욱 더 극진하도록 하는 것도 임업인의 할 일이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부모의 존재적 가치 또는 비환금적(非換金的) 가치 또는 간접적 효용 등으로 말한다.

우리 임업인은 한 가정의 생태계를 다루듯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생태계를 다루는 성스러운 작업이다. 여기에 우리는 한량없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숲은 약한 우리들의 부모이다. 임업인은 그 부모를 가장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경제인이고, 환경인이고, 자연보호의 실천자이다.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 예절과 효행이 중요하듯이 산과 숲에 대한 우리 국민의 예절과 효행도 중요하다.

이러한 때 산과 숲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도 극진해진다.

국가검정필 꿀벌 노제마병·부저병 전문치료제 후미딜®-B(Fumidil®-B)

후미딜®-B를 사용하는 양봉가들은 "봉충판이 노랗게 되고, 빈방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프랑스 사노피사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는 후미딜®-B는 전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 노제마병(Nosema apis) 및 부저병(Faulbrood)의 전문 치료제입니다.
- 꿀벌의 폐사율을 줄여 꿀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 치료 및 예방효과가 우수합니다.
- 안전성이 우수하여 꿀벌에 대한 약해가 거의 없습니다.
- 빈방이 없는 충실한 봉충판을 만들어 줍니다.

포장단위/단가 : 25g/8,000원 475g/140,000원

후미딜®-B는 사용해본 양봉가만이 다시 찾는 좋은 약입니다

일진실업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 764-11 수입원
☎ (02)923-3470 팩스: 927-3983 (주)성일파마

시양곡 급수작업이 단번에 끝나 시양노동력으로부터 애방되는

수위자동줄사양기 실용신안등록 제096017호외 11건

하나의 시양탱크에 줄사양기가 들어있는 전 봉군을 호스로 연결하고 한번 시양 밸브를 열면 줄사양기는 수위감지 부저가 있어 각군마다 자동으로 시양과 시양량이 조절된다.

'97신제품의 성능 : ■특허등록이 된 줄사양기는 기존 제품의 단점을 완전히 보완하여 노즐 막힘이 없고 시양은 더욱 빠르며, 시양액 넘침이 전혀 없고 견고하여 수명이 반 영구적이다. ■시양실빠짐 방지막 부착으로 빠져죽는 벌이 없다.

좋은 점 : ■기존보다 몇 백배 이상의 일손 절감과 이론 봉부터 늦가을까지 군세와 관계없이 적은 량부터 많은 량까지 각군마다 시양관리할 수 있으므로 번식·화분·제리 생산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사양기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누구든지 사양할 수 있다.

- 취급품목 : ■수위자동줄사양기 ■수위자동줄급수기
- 수위자동평면사양기 ■사양필터

태원산업 대표 노태원

☎ 678-850 경남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443번지
☎ (0599) 33-9548, FAX ; (0599) 33-9548
우체국온라인 : 610667-0005227 농협온라인 : 843092-56-005836